

〈12월 12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사시헌공

♫ 찬불가 연습

* 2부 : 불교대강좌

- 삼귀의
- 찬불가
- 강연 - 〈불교, 스님 그리고 나〉
동대부여교 교장 박현숙
- 새신도 환영
- 합창단 음성공양
- 정근
- 사홍서원

〈초청강좌 안내〉

날짜	주제	법사
12. 19(토)	진언수행 입문	교법사 진우스님
12. 26(토)	휴 회(개인정진)	
1. 2(토)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구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명진관 A105
금일 漢詩반은 휴강입니다.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올미년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행복도량 정각원에 인등을 밝히세요~

◎ 인등 : 1년 5만원 <토요 사시기도에 축원에 드립니다>

◎ 신청문의 : 정각원 행정팀 ☎ 2260-30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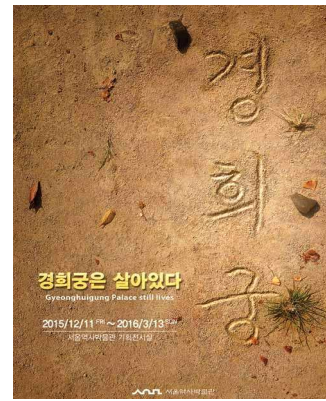


정각원 부처님께 공양미 올리세요!
보시금은 1만원입니다. <정각원 신도회>



崇政殿 현판 전시 안내

정각원 내부에 모셔진 승정전 현판이 <서울 2000년 역사문화 특별전 '경희궁'>에 전시됩니다. 조선시대 경희궁의 창건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경희궁의 흩어진 부재들의 흔적 찾기를 통해 궁으로서의 위상 및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니 많은 관람바랍니다.



* 기간

2015년 12월 11일(금)~
2016년 3월 13일(일)

* 장소

종로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A

* 문의

02)724-0274~6

보시동참

☪ 12월 7일 불전 공양 ☪

₩2,139,000원 (복지기금 적립 포함)

보광스님, 해주스님, 김문자, 고목훈, 구리시효자봉비어, 권복숙, 권혁재, 김종관, 김중관, 김희용, 남대문효자손만두, 남창강, 박사임, 박성진, 박재호, 박정자, 불인산방1080배, 신재호, 안정수, 양은영, 양창환, 윤병남, 윤여민, 이기형, 이봉자, 이수준, 이인주, 이춘식, 이형식, 전순화, 정광자, 정보현, 주호빈, 주호성, 최선자, 한영욱, 홍준기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 인등 기도 ☪

김보아, 김보희, 김유성, 남궁동, 남궁명, 남궁민, 남궁은, 남궁정, 남궁홍, 남궁훈, 박지나, 방수은, 신문균, 오순이, 이도영, 이옥희, 이홍범, 정구영, 정수아, 정원재, 정유선, 정운재, 정태훈, 정해영, 홍민기, 홍슬기, 홍정은, 홍준성, 홍찬희

☪ 공양 보시 ☪

- ❖ 불단 떡, 과일 : 정각원 신도회
- ❖ 떡 대중공양 : 박현숙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보시봉투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딱 한번만!**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장한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12월 12일

제314호(週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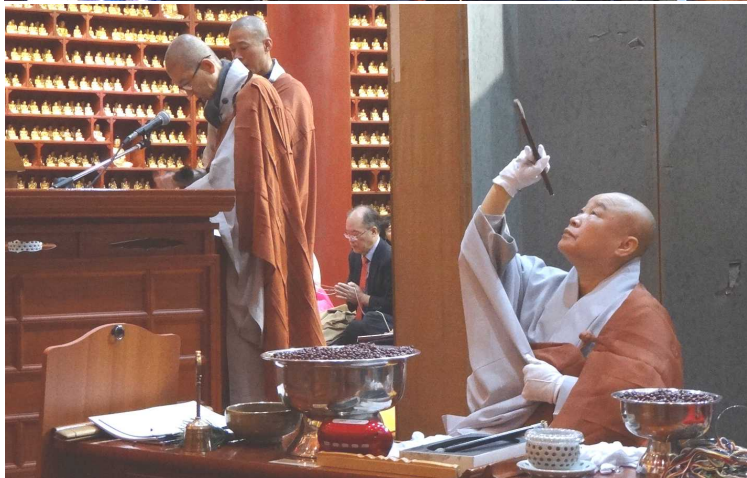


농부는 물길을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을 곧게 만든다.

목수는 굽은 나무를 곧게 다듬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법구경]

불기 2559년 대각전 원불봉안 범회 봉행



◎ 5일(토) 대각전에서 동주 어장스님과 원장스님을 모시고 295명의 불자님과 함께 불기 2559년 제 17차 원불봉안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새로 모신 498佛 포함, 총 7,242佛을 모신 대각전 법당의 봉안 원력으로 부처님 가피가 불자님 가정에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각전 원불봉안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정각

불교, 스님 그리고 나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교장 박현숙

승만은 우리 딸이지만,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근본이 뛰어나서 금방 쉽게 깨달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뵈옵기만 한다면, 반드시 가르침을 잘 이해하여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경지를 얻을 것입니다. 마땅한 때에 편지를 보내 그녀의 보리심을 발하게 합시다.

〈여래의 진실한 공덕 - p.153〉

-Queen SRIMALA

-부모의 역할

모든 중생들은 선근이 약하고 얽어서 어떤 중생은 ‘열 가지 큰 서원을 실천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라는 의심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중생들은 오랫동안 올바른 뜻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안락을 얻지도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중생들은 안락케 하기 위하여 이제 부처님 앞에서 진실한 서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열 가지 큰 서원을 지닐 수 있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행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서원으로 말미암아서 대중들 가운데 마땅히 하늘꽃(天花)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하늘의 미묘한 소리가 나게 하소서.

〈부처님의 증명 - p.162〉

-중생(나)의 생각

이러한 진실한 원으로써 한량없으며 가이없는 중생을 안온케 하며, 이러한 선근으로 모든 생(生)에 올바른 가르침의 지혜를 얻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큰 원이라 이름합니다. 제가 올바른 가르침의 지혜를 얻은 뒤에는 싫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하겠습니다. 이를 두 번째 큰 원이라 이름합니다.

제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 뒤에는 몸·목숨·재물을 버리고서 올바른 가르침을 보호해 지니겠습니다. 이를 세 번째 큰 원이라 이름합니다.

〈세 가지 큰 원 - pp.164~165〉

-본질과 실천

-불성(佛性)/여래장(如來藏)

“승만 부인의 세 가지 큰 서원은, 마치 모든 형체 있는 것이 허공 속에 다 포함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보살들이 세운 갠지스 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모든 원 역시 전부 이 세 가지 큰 원 속에 포함된다. 이 세 가지 큰 원은 진실하며 광대한 것이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지혜와 방편이 매우 깊고 미묘하니, 그대는 이미 오랫동안 모든 선의 근본을 심었기 때문이다. 내세의 중생 중에도 오래 선근을 심는 자는 능히 그대가 설한 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설하는 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은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미 설하였으며 장차 설할 것이며 이제 설하고 있는 바이며, 나 역시 이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을 항상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을 설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덕은 가이없으니, 왜냐하면 이렇게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큰 공덕이 있으며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섭수정법장 - p.167〉

-부처님 : the Teacher : 그대가 설하는 바를 듣겠노라
설하도록 하라

-나의 근기(根基)는?

파사익왕과 말리부인 vs 승만부인 → 부모님 vs 딸
부처님 vs 승만부인 → 교사 vs 학생

Queen SRIMALA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